

2017년 5월 19일, 성산읍 온평리 고유을 씨 댁, 송정희 조사.
고유을(여, 1924년생, 성산읍 온평리)

- 줄거리: 하루에 7일치 음식을 다 먹는 사람이 한라산에 가서 집 한 채 할 나무를 끌고 내려오다 보니 문밧벵디에 돌이 모두 다 쓸려 해변까지 내려왔다고 한다. 지금은 문밧벵디에 돌이 없다고 한다.

[제보자] 일훼. 일훼칠, 흐루에 다 먹어그네 한라산 가그네 집 훈그르치 다 헤그네 그거 다 엮언 그거 다 끂엉 오멍, 저 한라산으로 이레 끂언 오라네, 이 헤변??장 끂언 오라부나네 문밧벵디 돌 다 끂어 오라부난, 문밧벵디가 돌이 엇다 헤여이.

그거, 다 그 집 훈그르치 헤여네 엮언, 지렁지렁 어깨죽지에 메연 끂어온 거라. 겟 헤연 헤깍??장 끂어 오라부나네, 그 문밧벵디 돌 알려레 축항더레 다 누려가부난, 이제 갯꼬이가 성 담 다우고 무시거 허고, 그추룩 허게시리 누려가부난 끂언 그 디 오랏젠 그런 걸 곳는 거는, 그건 들엇인디.

그것도 무신, 잠깐 들엇주, 어린 때부떠 어떻게 헤서 큰 것도 몰르고, 그런 건 알아. 문밧벵디가 돌이 엇덴. 성문이로 이레 누려온디.

문밧벵디 돌 엇인 이유는, 한라산에 간에, 고지 간에 남 베여네, 집 훈그르칠 다 엮언에 일훼 먹을 걸, 훈 사름이 훈 번에 다 먹언 간, 그 낭을 그찬 그추룩 행 오랏Zen. 경 흐멍 문밧벵디 돌 문딱 썰어 오라부난 이디 오란 성창은 돌이 엇덴 허주, 문밧벵디.

- 핵심어 : 문밧벵디, 돌, 한라산, 남, 일훼치, 흐루